

화법과 작문 평가원  
고난도 해설편

1번 지문 18학년도 6월 5번

정답과 해설: ④

(가)에서 발명가의 세 번째 말을 보면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을 보면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나)에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자신이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찾을 수 없다.
- ② 발명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 ③ (가)의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이 아닌 필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에서 발명가 첫 번째 말을 보면 발명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comment: 화작은 개인적으로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가볍게 훑으면서 뭐가 나올지 파악하고 이에 집중해서 본문을 읽으면 좋다. 여기서도 학생2가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을 미리 보고 들어갔다면 (가)를 읽을 때 발명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체크해줘야지라고 독해 포인트를 잡으며 읽으면 됐다.

발명가의 말을 요약하면

- 1. 발명의 정의
- 2. 직접 만든 양념통 보여주며 아이디어 소개
- 3.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각의 단계 소개**
- 4.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마디

그런데 누가봐도 3번이 길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각각의 단계를 따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대 외우라는 것이 아닌 읽고 나서 저런 범주만 기억하면 괜찮다. 그정도면 충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에 반영한 것도 3번이다. 그럼 정답도 3번에서 내는 게 맞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정답 4번

2번 지문 18학년도 6월 10번

정답과 해설: ⑤

[A]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묻고 있다. [A]의 핵심 내용은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A]와 무관한 자료활용 방안이다. (나)의 4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
-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형 학습 일수 제한'은 (나)의 3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③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는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A]는 여름방학 기간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술이므로 오답이다.

comment: 비판 반박 문제는 독서에서도 자주 나온다 일단 확실한거는 가려면 상대방이 말한 거를 까야한다는 점이다.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까면 안된다. 즉 반대값으로 돌리면 편하다.

[A]에서 주장한 이유는

- 1. 학습이 연속적임
- 2. 학년 말의 비효율 학사 운영 피함
- 3. 근처 고등학교의 학생 만족도 높음

즉 가려면 반대값으로 돌려서 학습이 연속적이지 않고, 비효율을 피할 수 없음, 만족도 높지 않음 이렇게 까야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정답이 5번이다. 4번은 그럴듯한데 애초에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주장하지도 않은 걸 까면 안됩니다.

3번 지문 18학년도 9월 2번

정답과 해설: ⑤

2문단에 의하면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2문단 중간 부분에 의무 표시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 표시 성분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방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② 3문단을 보면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 순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개정 전 표시 도안이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진 데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를 구분해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ment:

발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후에 달라진 점

- 1 총 내용량 기준 함량 표시
- 2 표시 순서 변화
- 3 열량의 표시 방식
- 4 당류의 비율 표시

결국 발표와 자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정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이다. 이 지문을 어렵게 푸는 학생들은 지금 위에 나온 해설지처럼 풀 텐데 그렇게 풀면 안됩니다. 선지를 보면  $\square$ , 즉 당류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라고 했는데 이는 차이점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독해하면서 파악했던 차이점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

당류에 관한 차이점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추가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5

4번 지문 19학년도 6월 4번, 7번

1번

정답과 해설: ⑤

'학생 1'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2'의 제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지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2'가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triangle$ 거리,  $\square$ 길에 대한 언급은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학생 2'가 맛나거리에 대해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말하자, '학생 3'은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학생 2'는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하면서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두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라는 과제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mment:

마찬가지로 화작은 발문 먼저 보자 이 문제처럼 애초에 [A] 널 거라고 줬으면 해당 부분은 짝세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꼭 기억안 나면 손으로 해당 학생 발화 짚으면서 돌아가서 확인하자 제발...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사실 [A] 부분에서 출제하는 거니 읽으면서 아예 풀어버리는 게 최고다.

2번

정답과 해설: ④

㉠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학생 3'의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다는 의견과 '학생 2'의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다는 의견에서 찾을 수 있다.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 '반딧불',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라는 문구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의 대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생 2'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랑시의 예술 분야의 특색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 ②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대조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⑤ 사랑시의 전통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mment: 발문 먼저 보자.. a에 들어갈내용이라고 했고 (가)에서 지금 반딧불이 내용나올 때 반응했어야 한다.

지문에서 뭐뭉뭉 넣자고 나오면 그거 조건 끊어 읽었어야함 그래서 귀찮아도 조건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각각이 적용된 선지를 잘 골라내야 함

5번 지문 19학년도 수능 7번

정답과 해설: ③

'학생 3'은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전문]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두 번째 발화에서 행사에 대한 중심 소재를 [표제]에 드러내야 한다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표제]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B]에서 '학생 2'는 [본문]에서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뒀'다는 내용이 빠졌음을 지적하고,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생 3'은 [B]의 네 번째 발화에서 이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참가 인원수를 제시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학생 1'은 그러할 경우 기사문의 의도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자는 제안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제안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수용하였으나, 양쪽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자신이 담고자 의도한 내용이 [본문]에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학생 3'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다른 사실을 빠뜨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발화에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고 하여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학생 1'은 '학생 2'의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나,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학생 1'은 [B]에서 실제 사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A]에서 '학생 1'은 '참가 인원수를 적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기사문의 의도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 2'는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자고 제시한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하여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학생 2'가 제시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1'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생 1'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학생 2'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할 수 없다.

comment: 마찬가지로 화작은 발문 먼저 보자 이 문제처럼 애초에 [A], [B] 낼 거라고 봤으면 해당 부분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꼭 기억안나면 손으로 해당 학생 발화 짚으면서 돌아가서 확인하자 제발...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사실 [A], [B] 부분에서 출제하는 거니 읽으면서 아예 풀어버리는 게 최고다. 즉 [A] 부분 읽으면서 1,3,4,5의 [A] 부분 먼저 판단한 후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선지는 날리고 남은 선지에 대해서만 [B] 부분을 판단하면 된다. (여기서는 1번 4번 A에 대해 개소리 즉 [B]에 대해서는 2,3,5만 판단하면 됨)

제발 이런 문제 나오면 오래 걸려도 차분하게 맞도록 하자 출제하는 부분을 짚어준 문제니 그 부분만 꼼꼼하게 독해하면 된다. 마치 독서 읽듯이

6번 지문 19학년도 수능 9번

정답과 해설: ㉔

‘학생의 글’의 2문단에 ㉔의 사례로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가 언급되어 있다.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㉔의 사례로 제시된 모바일 뱅킹과 티켓 자동 발매기는 과세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㉑ ㉑를 통해 사람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글’의 4문단에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㉓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어 있다. 로봇 기술의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는 ㉑의 내용을 활용한 것이다.

㉒ ㉒와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 뒤처짐으로써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㉕ ㉕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 가운데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학생의 글’의 3문단에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로봇 수요 감소, 그에 따른 기술 개발 의지 약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comment:** 작문 문제에서는 자료와 지문의 연결을 자주 요구하고 해당 문제는 대부분 어렵다. 즉 자료가 있다면 지문의 정확하게 어떤 부분과 대응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응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해당 자료가 쓰이는 이유가 과세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즉 2문단을 읽을 때 ‘또’라는 표현을 보고 반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범주화하며 읽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b가 첫 번째 이유와 관련된 것이지 두 번째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7번 지문 20학년도 6월 10번

정답과 해설: ㉓

㉓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㉑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체코가 가장 높았으므로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수정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㉑ ㉑에 ‘물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㉒를 통해 PVC는 재활용이 어렵고, 철은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㉒를 참고하여 ㉑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㉒ ㉒에는 PVC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며, 질기고 깨지지 않아 필통 등에 쓰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㉒를 활용하여 PVC로 학용품을 생산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낼 수 있다.

㉔ ㉔에는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㉕에는 PVC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㉒와 ㉕를 참고하여 ㉔에 제시된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㉕ ㉕은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PVC를 대체할 다른 재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㉒와 ㉕를 참고하여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할 수 있다.

**comment:** 작문 문제의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자료를 주고 지문과의 대응을 묻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경우 선지를 보고 지문과 연결을 할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자료에 나오는 것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대응될지 대충이라도 파악하는 것이 옳다.

즉 가를 보고는 pvc는 안좋은거고 pp나 pet 프탈레이트 안들어가니까 그나마 나은거네

나를 보고는 일단 대부분의 나라가 사용량 증가중이네 다를 보고는 아 역시 pvc가 쓰레기구나 pp나 pet가 낫고 pet 중에서도 무색이 재활용 잘되고 역시 짱짱맨은 철! 그럼 아마도 가랑 다를 근거로 필통 재질 다른거로 바꿔 달라고 하겠네? 지문에서 pvc쓴다고 했으니가 이렇게 정리해두고 선지로 가야한다.

그러면 적어도 1,2,4,5 선지는 적절하다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소거법으로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음.

선제적으로 증가율 가장 높은지 안높은지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

다만 교훈은 3번 선지는 선지 끊어읽기가 중요했음 3위인지 / 증가율도! 가장 높은지 이렇게 두 개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즉 만약에 수능 현장에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래프 해석을 물을 수 있으니 그래프랑 선지 꼼꼼하게 보자**

8번 지문 21수능 2번

정답과 해설: ④

3문단의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에 제시된 것처럼,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은 사신이다. 그런데 [자료 3]의 고분 벽화에 그려진 대상은 사신이 아니라 연꽃 위에 그린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이므로,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㉔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는 선지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㉑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라고 했으므로, ㉑에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자료 1]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㉒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라고 했으므로, ㉒에 종에 비해 주인이 크게 그려져 있는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㉓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㉓에 종에 비해 주인이 크게 그려져 있는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㉔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㉔에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이 그려져 있는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자료 문제가 나오면 해당 자료랑 지문이란 연결하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즉 자료1은 ㄱ에 돌방무덤 내부 나타내는거,

자료2는 ㄴ에 주인과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거,(그 이유는 주인의 권위강조), 자료3은 ㄷ에 신선이 나타나고 이는 불교도교 사상 공존 나타낸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면 자료3이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문에도 '한편'이라는 범주 바뀌는 힌트가 있었다. 신선 그림과 사신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신에 대한 설명인 지켜준다는 점을 신선에 연결지면 안됐다.**

9번 지문 22수능 39번, 40번

1번

정답과 해설: ①

2문단은 시간, 공간, 운영할 인원, 심사자 확보 등의 문제로 예선 참가 인원을 한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문단에서는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설문 조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는 ㉑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한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로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㉒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우리 학교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인근의 학교들 중에서 대면 토론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예선에서 토론 개요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㉓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㉔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제발 화작도 범주 파악은 좀 하자...

지문에서 현행 문제점이 등장하는건 3문단임 2문단에다 가져다가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면 안됨...

현행 이야기 나오는 건 3문단임

애들이 이거 많이 낚이는데 어! 2문단에 그런데! 참가침이 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 때문에 낚이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실행한거고 이 지문의 주제는 '올해 학생회에서 예선 방식 좀 개선해줘' 이거라 전혀 관련이 없음...

2번

정답과 해설: ③

(가)에서는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예선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현행의 대면 토론을 토론 개요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일정상의 문제로 예선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예선 기간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학생 3이 제안한 동영상 활용 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를 통해 (가)에서 제시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식과 학생 3이 새롭게 제시한 동영상 활용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가)의 내용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시간과 공간, 심사자의 부족 등의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2문단에서 현행 예선 방식이 현장감 있는 대면 토론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 1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얘기해 줄래?'라며 현행 예선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언에서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마지막 발화를 통해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참가 기회가 제한된다는 현행 예선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 토론 개요서 제출 방안의 도입을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comment:

발문에 '학생 1'이라 했으니까 읽을 때 제발 학생1 발화에 선제적으로 집중해야함  
다만 이 지문은 하나가 더 필요함 (가)를 읽으면서 문제점 두 가지를 체크해줬어야함(문제점은 애초에 독해 포인트임 건의하는 글에서)  
그리고 학생 1이 시작부터 그 두가지중 하나인 기간 연장은 막아 버리고 시작함 (가)와 (나)의 연결포인트 따라서 (가)의 두 가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절대 안됨

10번 지문 22수능 45번

정답과 해설: ③

(나-1)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를 보면, 상지 부위의 경우 악기 연주자의 유병률이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7배이므로, 유병률은 건반 악기, 현악기, 관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 ② 전체 부위 유병률은 건반 악기가 75.0%, 현악기가 68.1%, 관악기가 57.6%로, 이는 상지 부위의 유병률의 순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지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로, 건반 악기, 관악기, 현악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부위 유병률과 하지 부위 유병률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나-2)를 보면, 연습 중 휴식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관악기는 51.2%에서 3.1%로, 현악기는 40.7%에서 19.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악기보다 관악기가 휴식을 하는 것이 유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⑤ <초고>의 3문단에서는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를 활용하여 스트레칭 운동, 안정화 운동 등의 운동 방법과 근육의 긴장 완화, 바른 자세로의 교정 등 그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comment:

자료 활용은 제발 선제적으로 자료 분석하고 선지로 들어 가야함 자료 분석해보면  
(가)는 2문단의 건반 악기 연주자들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게 확인됨  
+ 3문단 초입에 악기군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부위 유병률 순위와 부위별 유병률 순위는 일부 차이를 보였더라는 게 자료에서 분석하면 상지 부위는 건반이 젤 높고 그다음이 현악기 그 다음이 관악기인데 하지 부위는 건반 다음 관악 다음 현악이라는 거에서 확인됨  
(나-1)은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 확인됨 본문에서는 규칙적인 휴식이 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식은 연주 자세가 젤 높음  
(나-2)는 휴식이 실제로 유병률이 낮춘다는 것을 통해 휴식의 중요성을 알려줌  
(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로 운동으로 근골격계에 도움이된다는 사실 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들어갔다면 당연히도 답이 3번임 (나-1)은 사용한다면 이유가 연주 자세가 잘못된 인식이니 그거 고쳐야지로 활용해야지 3번 선지처럼 말하면 안됨

1번

정답과 해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청소년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라는, 예상되는 반론의 주장을 제시한 뒤, 기존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소수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활동만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예상되는 반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초고의 1문단에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라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의 변화'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화한 것이 아니다.
- ② 초고의 내용 중 통념을 언급한 내용이나 통념의 모순을 지적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④ 초고의 3문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주장의 한계점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초고의 3문단에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실시 대상의 확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comment:** 주장하는 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의 주장이 언급되는 경우 행여가자!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

정답과 해설: ③

초고의 [A]는 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의 접근 방향인 '실시 대상 확대'와 '활동 내용 다양화' 중에서 '실시 대상 확대'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실시 대상의 확대'와 '활동 내용의 다양화'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고쳐쓰기 과정에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글에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어때?'이다

오답 해설

- ① 초고의 [A]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정 관리 프로그램' 실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초고의 [A]에는 '지역 구성원'이라는 예상 독자가 언급되어 있다.
- ④ 초고의 [A] 내용 중 초고의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보기>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삭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 ⑤ 초고의 [A]에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이라는 해결 방안의 이점을 다루고 있다.

**comment:**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제발 고쳐쓰기 문항 나오면 방향 확인하셈!!  
<보기>가 고쳐쓴 후일수도 있고 고쳐쓰기 전일수도 있음!!!

정답과 해설: ②

(가)의 1문단 마지막 문장 '국내 팬 상품 시장의 ~ 확대되었다.'와 (나)의 '학생 1' 열 번째 발화 '팬 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할 것 같아.'를 통해 (가)의 처음에 2014년도 국내 팬 상품 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학생 2', '학생 1'의 각각 여섯 번째 발화를 보면, (가)의 제목을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수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목을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일회성 소비'를 '충동적 소비'로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소비'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학생 2'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5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나)에서 '학생 3'의 다섯 번째 발화를 연결하여 보면,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어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교체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comment:

고쳐쓰기를 풀 때는 애초에 (나)에서 뭘 수정하자고 했는지 범주화해두며 읽었어야 했다.

정리하면

1. 두 관점 모두 담자
2. 제목 수정
3. 2문단 충동적 소비니 마지막 문단 일회성 소비 중심 내용과 어울리게 교체
4. 설문 조사에서 빠트린 거 있으니 넣기
5. 마지막 문단에서 초점에서 벗어나는 거 삭제
6. 비교 기준이 되는 해외 팬 상품 시장의 규모 밝히기

이렇게 넘버링하면서 읽었다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태도이니 챙겨가자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넘버링 해두면 가시적으로 찾기가 쉽다.

1번

정답과 해설: ③

[B]에서 '학생 1'은 '약효가 있는 식물은 그 정보도 제시하지는 거지?', '식물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자는 말이었어?'와 같이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학생 2'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도 좋지만,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더 좋을 듯해.'와 같이 '학생 1'의 발화를 일부 재진술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1'은 □□ 농장에는 매실나무만 많다는 점을, '학생 2'는 □□ 농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가 본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는 '그거 좋은데?'와 같이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우리가 행복산에서 조사할 꽃과 나무 중 일부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학생 3'의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은 '□□ 농장에 갔으면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와 같이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B]의 첫 번째 발화에서도 '학생 3'은 '식물 이름과 함께 식물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도 제시했으면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와 같이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comment: 아까 19수능 해설에서 해설한 코멘트 참고 학생 하나 늘었을 뿐이지 행동영역은 동일함 읽으면서 판단이 핵심

2번

정답과 해설: ②

(나)에서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국가 보호종을 비롯해 주목할 만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할 듯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의 2문단에서 ○○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대한 여러 종류의 식물 사진을 찍은' 후에 '학년마다 특색 있게 그린 지도 위에 조사한 모든 식물의 이름을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처럼) 우리도 몇몇 주목할 식물만 지도에 표시한다.'를 수용할 점으로 논의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2문단에서 '식물의 이름을 알려 주는 누리집을 이용해 식물 이름을 편리하게 찾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식물 이름은 ○○고등학교처럼 누리집을 이용해 편리하게 찾자.'라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아이디어를 (나)에서 수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식물 지도의 범위를 '△△동 전체'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의 범위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 1'이 '그러자.'라고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가)의 지도의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을 통해 ○○고등학교에서는 식물 지도의 범위를 '△△동 전체'로 했다는 점을, 3문단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조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를 조사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 3'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라고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을 조사할 장소에 대해서는 (나)에서 (가)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만든 지도를 이어 붙여' △△동 식물 지도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학생 2'의 여덟 번째 발화를 보면 '○○고등학교가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지도를 만든 건 참신하긴 한데 통일감이 없어 부자연스러울 듯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가)의 지도를 이어 붙이는 방식은 (나)에서 수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mment:** 이 문제는 소거법이 맞습니다. 애초에 논의의 핵심은 어떤 점을 수용하고 달리할지 논의하는거라 그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데 나머지 선지는 발화에서 직접적인 근거가 드러나는데 2번 선지는 직접적인 발화는 없고 (가)의 내용까지 고려해서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를 발화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내고 확신을 가지고 남는 선지인 2번을 정답으로 고르셨다면 충분합니다.

즉 애초에 (나) 읽으시면서 각 발화에서 수용할 점하고 달리할 점을 넘버링하면서 읽었으면 풀기 편합니다. 앞에 23학년도 9월 풀이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14번 지문 24학년도 6월 40, 41

1번

정답과 해설: ⑤

(나)에서는 초보 운전자 대부분이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 자료를 스크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언급하며,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는 비용이 발생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설문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표지를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데 국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규격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반대 측이 표지 교체 비용을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는 '초보 스티커, 되레 난폭 운전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표지 부착 부작용 사례를 다룬 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집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험 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인터넷 신문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표지 부착 의무화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임시 면허 기간을 두어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이는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문 자료를 찾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논문 자료에 제시된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 교통 문화 지수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운전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표지 부착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보도 자료에 제시된 교통 문화 지수의 상승 추세를 바탕으로, 운전 문화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표지 부착 의무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저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의 반대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표지 규격화가 개성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규격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comment:

올해 6월입니다. 이거도 똑같아요  
다만 이걸 반대 측 입론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가)의 반대측의 발화 +  
(나)에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즉 (가)의 반대측 주장 넘버링 + (나)에 나온 주장들  
넘버링 했으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거지 초보 운  
전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2번

정답과 해설: ①

1문단에서는 토론의 논제를 보고 자신도 내년이면 먼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겼으며 토론에 참  
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하지만 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선  
택하게 된 계기는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2문단에서는 먼저 쟁점을 분석한 후 주장할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에는 근거 자료를 마련했으며, 그다음 날에는 친구  
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았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 ③ 2문단에서는 인터넷에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과 신문 기  
사를 수집하였고, 관련 기관에 메일로 요청하여 보도 자료를  
받았으며,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고 설문 결과를 스크랩했  
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론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④ 3문단에서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해서 말을 더  
듣는 편이라 걱정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  
전처럼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고 그 덕분에 토론에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말하기 불안 문제를 인  
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 것이다.
- ⑤ 3문단에서는 토론 후 상호 평가를 해 보니,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한 반면 자신은 찬성 측 반론을  
미흡하게 반박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는 친구  
와 자신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다.

comment: 기억 안나면 해당 문단가서 다시 보면  
된다. 당황하지 말자. 해당 문단에서 해당 정보만  
찾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보면 된다.

15번 지문 24학년도 9월 40, 41

1번

정답과 해설: ①

(가)의 '전문가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생회장'은 방송  
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의 의견  
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3문단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유물의 보존과 연  
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다)의 4문단에서는 증축될 박물관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의 '전문가 2'가 세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의 정의와  
관련해 공동체의 참여를 언급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  
며 자신의 의견을 밝힌 부분은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전문가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박물관이 위치한 지  
역이 ○○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  
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전문가가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므로,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  
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의 3문단에서는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우리 지역이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  
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 1'의 의견과는 다른 내용이며, 박  
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다)의 2문단에서는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해 달라고 건의하며, 청소년이 체험해 보는 교육 활동을 좋  
아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는 (나)의 '학생 1'이 세  
번째 발화에서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 달라고 건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부분  
은 없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전문가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이번 기회에 시민 활  
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나)의 '학생 2'는 전문가도博物관  
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음을 언급하  
며, 유물 모형을 만져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  
라고 건의하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2문단에서는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다)의 3문단에서 역사학 관련 진로 체  
험의 기회가 부족함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과는 관계가 없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comment:

(가)에서는 전문가 1,2가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의견을 잘 정리해줬어야 한다. 전문가 1,2를 각자의 주장 + 이유 이렇게 범주화했으면 된다.

그리고 (나)에서 각 학생들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지를 잡았으면 됐다.

이걸 체크하면서 읽었다면 당연하게도 답이 1번이다. 나머지 선지는 다 연결이 이상하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선지임

2번

정답과 해설: ①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과 관련하여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의 3문단에서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②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한다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③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우리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역에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한 것이다.

④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이라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진로 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⑤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 주셨으면 한다는 초고의 내용이 (다)의 3문단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는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comment: 방향만 조심하면 된다

16번 지문 14학년도 예비평가 b형 1,2,3

comment: 중요한 기출이니 풀어보세요

1번

정답과 해설: ⑤

찬성 1은 입론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⑤는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최근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라는 논제와 관련된 국립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③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찬성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④ 관광객의 추가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번

정답과 해설: ⑤

토론에서는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정상 주변의 원시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거로 환경 훼손을 근거로 들어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케이블카 설치가 추가적인 자연 훼손을 가져오므로 찬성 측의 논거가 될 수 없다.

② 새로운 색길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자연 훼손 문제가 발생하므로 찬성 측의 논거가 될 수 없다.

③ 정류장의 입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는 찬성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이다.

④ 제시 자료에는 미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3번

정답과 해설: ③

[A]를 참고하면, 확인 질문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입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논거를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그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반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탐방객 일부를 케이블카가 흡수한다는 내용은 찬성 의견

② 인공물의 설치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반대 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어 확인 질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④ 국립공원이 환경 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논의의 쟁점이 아니므로 확인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17번 지문 16학년도 수능 b형 3.4.5

**comment: 중요한 기출이니 풀어보세요**

1번

정답과 해설: ⑤

연설자는 연설에서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로 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설에서는 주로 도로 경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사이클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의 장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연설자는 대회 취지의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과 관련하여 사이클 대회 개최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 ②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며, A시가 이런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 ③ 연설자는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이클 선수 출신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였다.
- ④ 연설자는 선수로 출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A시의 도로 경기장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2번

정답과 해설: ②

연설자는 먼저 대회 취지가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임을 밝혔다. 이는 대회 취지 부합성 면으로 볼 때는 약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설자는 이런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이클에 대해 개최지 시민들과 개최지 인근 국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A시에의 대회 개최가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으로, 연설자는 대회 취지 부합성과 관련하여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장점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회 취지 부합성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전환하려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우호 증진이 대회 취지와 관련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 여건의 강점으로 시민의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④ 연설자는 개최지 선정에 불공평성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는 대회 개최 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⑤ 연설자는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에 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

3번

정답과 해설: ①

연설자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A시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밝혀 A시가 대회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연설자는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설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중의 반박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연설자는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것처럼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④ 연설자가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A시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중의 반응은 연설의 내용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연설의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 ⑤ 연설자는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에 있는 도시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A지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설자는 사이클에 대한 A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